

흔히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가늠할 때 실용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18세기에만 해도 연암 박지원이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학 운동을 펼치던 실용적인 면에서 뒤쳐졌던 우리나라였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그 첨단 기술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 그러나 전통 문화, 특히 불교와 관련된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예전 동서양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동양의 차 문화와 서양 실용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티백(tea bag)으로 대별할 수 있다.

동양에서는 차를 문화의 하나로 본다. 그래서 재료부터 엄선한다. 어디에서 어떻게 재배했으며, 어떤 상태의 잎사귀를 따서 어떻게 가공했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차를 마실 때 역시 차들의 온도와 우려내는 방법, 심지어 마시는 태도에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따라서 차를 마신다는 것을 섣다른 맛의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경건한 의식으로 승격시킨다.

그러나 티백은 정반대다. 차를 종이 백에 담아 따뜻한 물에 담가 우려내기만 하면 된다. 포장된 상태로 대량 생산을 하므로 재료에 관심을 기울일 이유도 없고, 물 온도를 맞추느라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간편하고 편리하다.

위와 같은 차이점 때문에 차는 소수의 애호가



불자 세상보기

권경희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티백’ 같은 수행 프로그램

들에게만 인기가 있고, 티백은 대중에게 널리 애용되고 있다. 사무실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번거로운 차보다는 티백을 선호하고 있다. 차의 온근한 맛보다 티백의 간편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셈이다.

차-티백과 비슷한 현상이 불교 수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인 참선과 위빠사나 등의 수행이 동양에서는 여전히 차 문화와 같은 양태로 전승되고 있는 반면, 서양에서는 티백과 같이 간편화되어 가고 있다. 서양의 심리학자나 명상가들이 동양에서 불교 수행을

도입해 그들 나름대로 가공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서양 사람들이 개발한 명상 프로그램이다. 불교 수행을 기반으로 두고 심리치료를 접목한 프로그램, 불교 수행을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이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내용이 구조화되어 있고, 운용 지침까지 마련되어 있어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다. 하루 몇 시간, 몇 주, 몇 회를 어떻게 하라고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양 사람들과 우리는 불교 수행에 접근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난다. 우리는 불교 수행

이러한 일단 부처님께서 깨달은 수행한 경지에 이르는 길을 따라간다는 경건함에 숙연해진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수행 가운데 자신들이 나름대로 이해한 부분을 아주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불교 수행을 통해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로 끌어안는 반면, 이들은 부분으로 쪼개어 그 가운데 실용적인 면을 취하고 있다. 그런 다음 차를 티백에 담듯 프로그램으로서 포장하고, 심지어 상품화하여 세상에 널리 보급하고 있다. 그것이 다시 불교의 본거지인 동양에 역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를 보면서 서양인의 철저한 실용 추구 정신에 다시 한 번 경외감이 느껴진다. 한편으로 자괴감도 든다. 원조라 할 수 있는 우리는 이제야 불교 수행의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들은 이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의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선점을 당한 셈이다. 걱정스러운 면도 있다. 서양인들이 불교 수행을 파편적으로 도입하면서 불교 자체보다는 기법 측면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는 사라지고 기법만 남는다.

수행의 대중화가 절실한 요즘 서양인의 실용 정신을 참조하면서 불교의 근본을 잃지 않는 묘책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불자의 눈

월간 <해인(海印)>지가 2월호로 지령 300호를 맞았다. 1982년 해인사 강원의 포교부가 학생법회 회보용으로 만든 것이 그 시작이다. 처음부터 포교에 원력을 둔 '포교지'였다. 포교지란 접을 강조하는 이유는 <해인>이 그간 담당해 온 역할이 참으로 컸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도시화에 가속이 붙은 70년대 말부터 부각된 포교의 중요한 코드가 '문서포교'였다. 많지 않은 잡지와 신문 등이 급변하는 사회기류를 따라잡으며 포교를 감당하기가 다소 벅찬 때에 <해인>지가 탄생했던 것이다. 매체가 다양하지 않던 시절에 <해인>지를 통해 큰스님들의 법문이 가정으로 배달되고 젊은 스님들의 기가 넘치는 글들이 청년 불자들의 가슴에 메아리로 날면서 포교의 저변이 다져졌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불교계에서나 사회에서는 <해인>지의 지령 300호를 축하하며 그간 제작에 관여했던 스님들이 교계의 중진으로 자리 잡았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나의 포교지가 꾸준히 발행됨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이렇게 컸는데 새삼 놀라는 이들도 많다.

월간 '해인' 지령 300호 문서포교의 '오늘과 내일'

<해인>지는 오늘의 불교계에 몇 가지 교훈을 남기고 있다. 첫째는 문서포교를 위해서는 꾸준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질적 투자와 인적투자가 없이 문서포교는 불가능하다. 특히 인적투자가 중요하다. 정기간행물로서의 포교지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편집과 기획 그리고 좋은 필자와 매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인>지가 '스님 문장가'를 다수 배출한 이력은 단연 돋보인다.

또 <해인>지가 포교지답게 군법당이나 교도소 병원 등 소외지역으로 상당수 배포되고 있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이다. 불교계의 매체들이 열악한 수위구조를 극복하는 상황에서 소외지역에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가독성을 최대한 살린 편집도 <해인>지가 여타의 사보들에 비해 돋보이는 대목이다.

지금도 다양한 매체들이 '포교의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 책박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웅변한 사찰이면 정기적으로 사보를 내고 있고 수행단체들도 회보 발간에 비중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한 포교 활동도 그 영역을 폭발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오히려 매체의 홍수 속에서 독자들에게 혹은 네티즌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불교계의 매체포교는 이제 상당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독자 중심'이다. 어떤 독자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포교라는 절대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방편으로서의 매체는 불자를 더 깊이 끌어들이고 비불자를 방법으로 이끄는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해인>지의 '지령 300호'라는 성과가 오늘날 불교계 문서포교 매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비전을 허심탄회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들었다 모골탑(母骨塔)

"첫째 자식을 제어하여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해야 하며, 둘째 착한 행위를 가르쳐 주며, 셋째 학과 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산생경>

부처님은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의 세 가지 자제를 이렇게 말씀했다.

집안에서 살림에 전념하던 40~50대 어머니들이 취업전선에 나서고 있다. 남자 혼자 벌어서는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얘기나고? 아니다. 정규교육에 드는 비용이다. 학기별로 400~800만원 드는 대학등록금 때문에 벌어도 벌어도 모자라는 현실이다.

옛날에는 소 팔아 등록금 낸다고 해서 우골탑(母骨塔)이라 불렀지만 요즘엔 나이가 어머니가 힘든 일을 하며 학비를 낸다 해서 모골탑(母骨塔)이란 말이 생겼다.

배 아파 낫아서 먹이고 입히고 키워놔더니 아젠 좀더 나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어머니들이 취업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명 '등록금 취업'이다.

"등록금만 털 올려도 당장 그만두고 싶은" 어머니들이 대다수. 아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파출부, 베이비시터로, 심지어 건설현장의 막노동까지 섭렵하고 있다.

배움을 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기본이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그 어느 나라보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신을 더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들의 심정을 자식들은 알까? 언제까지 그냥 당연히 받아야 할 부모님의 은혜이자 의무로 여겨야 하는 것인지 한번쯤 고민할 때다.

이 땅의 자식들이여, 자립의 길을 찾아보라. ■강지연(취재기자)

새해 이것만은... 어린이 포교 제도적 장치 마련을

'어린이·청소년 포교 없이 한국 불교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조계종에서 어린이포교 전담팀을 구성해 어린이포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부터 시작된 어린이포교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와 교육 변화에 발맞추지 못해, 그동안 신심만으로 지탱되어온 어린이포교 관련단체나 활동가들의 어려움은 적지 않았다.

어린이포교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계획과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그동안 종단에서도 받아들이기 더 힘들지 않았을까?

2006년 11월 '어린이포교 전진대회'로 어린이, 청소년포교의 중요성은 충분히 홍보·인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어린이포교가

위나 관심 밖의 일이었기 때문인지 가지적 홍보성과는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분위기는 형성되었지만 어린이·청소년포교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인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타종교, 타종단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제 어린이아가 걸음마를 하려는 시기다.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면서 바로 걷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울헤 해야 할 일은 바로 걷기 위해 많이 넘어지지 않는 연습과 노력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 포교 관련 제도 개선은 매우 시급하다. 법령을 개정하여 어린이 포교를 하고 있는 사찰이나 스님은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하여 어린이 포교에 더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움과 힘을 준다. 또한 어린이 법회가 없어 어려움을 토로하는 곳은 개설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어린이 법회를 보고 있는 곳에서조차 아이들이 없어 힘들어하는 곳이 많아

해는 무엇보다 활성화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 법회 지도자 양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어린이 법회를 열고 싶지만 지도자를 구하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나 모임을 적극 활성화 시켜 힘든 어린이 법회 지원이나 개설에 도움을 주어 누구나 어린이 법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많다. 불자들 모두가 해야 할 일도 있다. 사찰 신도들이 적극 앞장서서 내 아이부터 절에 보내면 어떻까? 어린 자녀들이 어린이법회로 인하여 변화가 있고 참다운 인간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더없이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강조되고 학교 교육에서도 중요시 되는 부분이 인성교육이다. 하지만 그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모두 할 수 없다. 가정의 기본이 되고 그 사회에서 책임져야 할 몫인 것이다. 이런 부분을 어린이 법회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 포교에 있어 우리가 할 일은 너무도 많다. 변화하는 시대에 어린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알아 어린이 포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미래불교는 밝다.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과 미소 속에 부처님을 보듯 어린이 포교에서 미래불교를 찾는다. 불자들 모두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주고 보아 준다면 이 아이들이 커서 미래 불교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이 될 것이다.

우리들의 정성이 썩 없이 되고 있듯 모든 어린이들이 지혜와 자비를 갖춘 불자로 성장하여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최미선(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사무국장)

주지스님 인사고과·법회 개설 지원 시스템 필요



골반명가 天一氣功

천일기공은 93년도에 창립되어 14년간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건강법을 전수 해 왔습니다.

소백산 수련원에서 실시하는 「3박4일코스 건강기공 강좌」에는 전국각지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들이 꾸준히 참가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독일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만성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요통, 좌골신경통, 관절통, 오십견, 견비통, 팔저림, 목디스크, 요실금, 코골이, 무호흡증, 수족냉증, 위장병, 비만, 불면증, 당뇨, 고혈압, 갑상선, 우울증, 초조불안, 두통, 안짱다리, 생리불순, 생리통, 부인병 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 소주천수련법, 임, 도맥통법, 천지관기법 등 다양한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수승화강의 원리를 모르고 병치료를 논하지말라
※ 사기(음기)를 배출하지않고 어떻게 병을 고치시렵니까?
※ 전화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서울본원 (02)3436-3206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

고차원세계의 과학 - 그리고 레이키 -

1.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박희준 회장이 새로이 개설한 홈페이지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혹은 www.spiritualism.co.kr, 의 회원이 되시면 고차원세계의 실상을 과학적인 눈을 가지고 접근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저 세상의 참 모습을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회원이 되십시오. 앞으로 계속 기사를 실을 것입니다.

2. 동서양식 레이키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5만원 단체교육은 매월 1회 토요일에 걸쳐서 시행됩니다. 개인교육은 날짜와 시간을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키는 에너지 요법 즉 쿼치료법의 총아입니다. 레이키는 교육만 받으면 그날부터 능력자가 될 수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지역(화춘)은 1997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레이키 교육을 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입니다.

3. 카루나 레이키 교육비 30만원, 교육기간 1일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음과 에너지를 환부에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4. 박희준 회장 약력 20여년간 건강분야, 불교분야, 정신세계분야의 저술가, 번역가로 활동하여 10여권의 저서와 1백여권의 번역서를 냈습니다. Spiritualism, 윤회전생, 초능력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던 끝에 그 자료들을 인터넷에 공개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www.spiritualism.co.kr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입증 및 교육안내

- ◆입증 안내 구비서류
●본종 입증신청서 (총무원, 지방총무원 비치) 2통 : 요청시 우편발송 가능.
●주민등록 등본 2통.
●승적증빙서류 (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2통.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2통.
●여권용 사진 5매.
●최종학급 졸업 증명서 2통.
●사찰 전경사진(내, 외부)
◆행자(예비승) 모집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법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연령 45세 미만, 학력 고졸이상.
●특전 : 행자 이수 후 승려교육 수행과 겸해서 본사나 말사에 수행 할수 있음.
◆대승불교 전문대학 교육안내
●1학년(사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기본의식, 범음, 범패(타 종단 스님 가능)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이 되어 있음)

문의 및 접수처 :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총무원

주소 : 부산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051)527-5431~2 / 팩스 051)527-7733
경남총무원 055)943-6570 / 중부총무원 043)648-8942 / 제주총무원 064)724-0318~9